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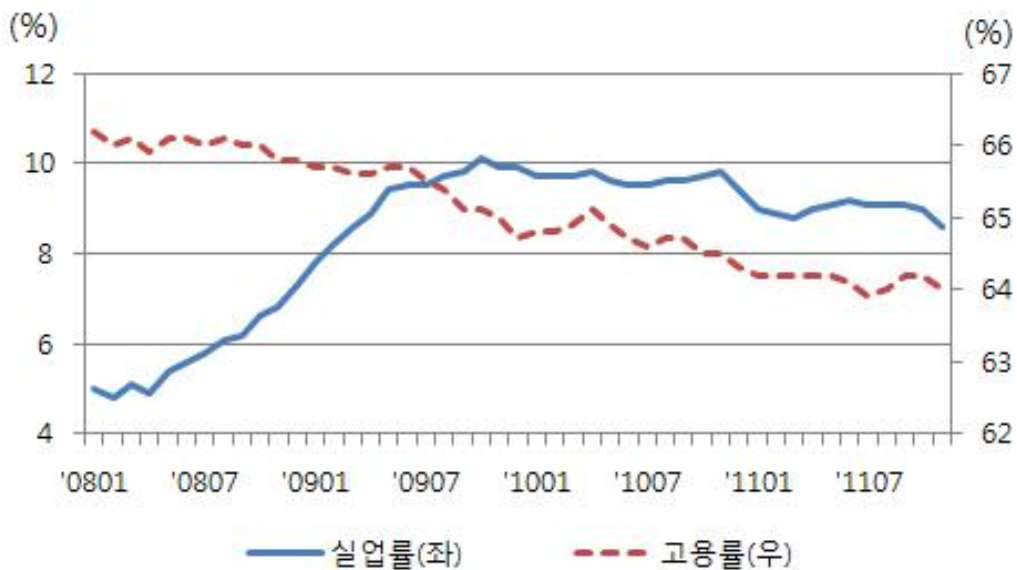
# 11월 미국 실업률,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(8.6%) 기록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국 노동부는 2011년 11월 미국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낮은 8.6%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2009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.

- 당초 11월 실업률은 9%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나 취업자가 27만 8,000명 증가하고 구직포기자도 31만 5,000명 증가하면서 8.6%로 크게 하락하였으며, 이는 2009년 3월 실업률 8.6% 기록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.
- 11월 민간고용은 14만 명 증가하면서 9~11월 3개월간 평균 14만 3,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일본 대지진과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불거진 5~8월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임.

〈그림 1〉 미국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



■ 그러나 기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11월 신규 일자리가 예상치인 12만 5,000개를 하회한 12만 개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동 증가분 중 소매부문과 임시직 지원업체 일자리 수 증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11월 일자리 수는 소매부문에서 5만 명이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는데, 이는 최근 민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.
- 임시직 지원업체(temporary help firm)와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업 일자리 수도 각각 2만 개씩 증가했으나. 컴퓨터 엔지니어나 회계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1만 명 이하의 증가에 그쳐 제조업부문은 전월 수준에 머무름.
- 한편, 민간부문 중 건설부문 일자리 수는 1만 2,000개가 감소하였으며, 공공부문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일자리가 각각 1만 6,000개, 4,000개 감소하면서 총 2만 개가 감소함.

■ 일부 경제학자들은 2011년 1~2월에도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9%를 하회한 바 있으나 다시 9%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실업률 하락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.

- 경제정책연구센터(CEPR)의 딘 베이커 이사는 구직포기자 증가로 인한 실업률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이번 실업률 하락은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함.
- 실업률은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질문을 받은 한 주 동안 실업상태에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실업률이 하락할 수 있음.
- 동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11월 고용률은 증가하지 못하고 10월 64.2%에서 64.0%로 오히려 하락함.
- 그러나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업률과 기업조사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수 데이터 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미 노동부는 가계조사가 자영업자나 가족고용 등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회복 여부를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함.

(LA Times, 12/2)